해 설

배합사료 가격인상 및 일부사료 성분량 한도 개정실시

김 정 인
(本誌 편집위원)

작년 후반기부터 꾸준히 나돌던 배합사료의 가격인상이 1980년 1월 22일 드디어 현실화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축산불황으로 기진맥진하였던 양계업계에 육계가격이 오르는등 짧은 희소식에 부풀었던 육계업자도, 너무나 낮은 난가에 허덕이고 있던 채란업자들에게도 도 너무나 높은 인상소식에 접하고서는 눈앞이 캄캄해지는것을 느꼈을 것이다.

인상폭이 환율변동 때문에 당초의 17%에서 28.3%로 대폭 높아져 양축가들의 주름살은 당분간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다.

지금 세계는 이란의 미대사관원 인질사태 아프가니스탄의 소련군점령등으로 뒤숭숭하여 석유나 금값이 폭등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달러환율이 19.8%나 인상되어 금년도의 물가상승율이 어느정도가 될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비단 축산업계만 당하는 시련은 아니겠지만 워낙 축산업중의 사료비부담이 크고 보니 모든 양계업자를 포함한 축산업자들은 단 1%의 경영합리화가능성에라도 전력을 투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누구의 도움을 기대하리만큼 국제정세나 국내 경제가 희망적인것도 아닌만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난국을 해결할 때가 아닌가 싶다.

품목별 배합사료가격조정 총괄표

(단위 : 원/kg)

종별	구분	일반공장			농축협공장			비 고
		현 행	조 정	대 비	현 행	조 정	대 비	
양계용 (10종)	어 린 병 아 리	122.44	142.94	16.74	120.41	140.56	16.73	※본가격은공장도가격이며일반공장은부가가치세가포함된가격으로서80.1.22.부터시행함
	중 병 아 리	108.74	139.47	28.26	106.27	137.20	29.11	
	산 란 초 기	104.25	134.51	29.03	102.17	132.45	29.64	
	큰 병 아 리	91.79	114.94	25.22	89.92	111.85	24.39	
	산 란 중 기	98.09	121.17	33.72	95.77	129.02	34.72	
	산 란 말 기	94.78	126.67	33.65	92.26	124.28	34.71	
	육 계 전 기	128.24	158.44	23.55	126.42	156.60	23.87	
	육 계 후 기(Ⅰ)	124.30	148.91	19.80	122.48	146.89	19.93	
	육 계 후 기(Ⅱ)		147.36			145.35		
	종 계 (가중평균)	103.68	135.74	30.92 (13.6)	101.55	133.61	21.57	

종별	구분	일반공장 현행	일반공장 조정	일반공장 대비	농축협공장 현행	농축협공장 조정	농축협공장 대비	비고
양돈용 (7종)	젖먹이돼지	119.33	139.08	16.55%	116.95	136.98	17.13%	
	육성돈	100.64	132.07	31.23	98.01	129.88	32.52	
	비육돈전기	97.49	132.70	36.12	95.36	130.48	36.83	
	비육돈후기	95.05	130.99	37.81	92.26	128.78	39.58	
	임신돈	90.52	125.77	38.94	87.57	123.38	40.89	
	포유돈	98.59	131.62	33.50	96.25	129.44	34.48	
	종돈	92.74	125.72	35.56	89.82	123.27	37.24	
	(가중평균)			(7.8)				
축우용 (10종)	어린송아지	109.57	138.40	26.31	107.36	136.13	26.80	
	중송아지	105.39	133.85	27.00	103.64	131.40	26.79	
	큰송아지	82.42	110.02	33.48	79.17	106.72	34.80	
	임신우	83.05	110.64	33.22	79.64	107.54	35.23	
	착유(Ⅰ)	81.39	110.40	35.64%	77.99	107.21	37.47	
	착유(Ⅱ)	89.03	123.09	38.26	85.69	120.49	40.61	
	착유(Ⅲ)	98.75	131.22	32.88	95.92	128.58	34.05	
	고깃소전기	90.25	126.87	40.58	86.90	124.26	42.99	
	고깃소후기	87.44	123.70	41.47	84.00	121.29	44.39	
	종모우	80.32	107.86	34.29	76.99	104.54	35.78	
(가	(가중평균)			(6.1)				
특수용 (3종)	소농축	98.36	137.09	39.38	96.40	135.07	40.11	
	육성비육		120.34			118.78		
	큰소비육	90.75	113.80	25.40	86.17	110.81	28.59	
	(가중평균)			(0.8)				
합계(30종)				28.3%				

1. 사료가격의 인상율

배합사료가격은 〈표1〉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양계용사료의 주품목인 산란초기용 배합사료가 일반공장의경우 29.03%, 농협이 29.64%가 인상되었으며 육계용사료의 경우 전기가 23.5~23.9% 후기용이 19.8~19.9% 인상되었다. 어린병아리용 사료는 16.7%의 소폭인상에 그쳤으나 그원인을 뒤에 설명되겠지만 사료의 조단백질 수준이 19%에서 18%로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이다.

2. 인상원인

금번 배합사료가격이 가중평균치로 28.3% 인상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즉 도입옥수수가 종전에 톤당 135$에 도입되던 것이 미국의 옥수수값앙등으로 160$로 조정되었으며 대두박이 종전kg당139.70원이었으나 175.61원으로 25.7%인상되었다. 또한 국산옥수수를 사료공장이 사용함으로서 1.8%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제조경비및 포장비인상등으로 2.6%, 환율때문에 11.8%가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결국 도입옥수수및 대두박가격인상및 환율조정으로 24%정도의 인상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 앞으로의 배합사료 가격및 수급전망

농수산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의 사료공급예상량은 약 350만톤으로 작년도의 약390만톤에 비하여 40만톤을 줄여잡고 있다. 최근 몇년동안은 배합사료수요량이 매년 20%이상 증가되어왔으나 금년도는 전국적인 긴축정책여파로 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될것이라는 전망하에 수립된 계획인것 같다. 반면에 사료공장의 근대화(대형화)지침은 그대로 강행한다고 하니 배합사료의 생산능력은 많이 남아돌게 되어 사료공장이 판매경쟁이 한결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합사료의 공급가격은 당분간은 정부의 최고판매가격에 준하여 공급되겠으나 금번 인상요인에서 사료용 첨가제 인산칼슘 포장비등의 인상요인이 무시되었거나 과소계산되었고 기타박류및 어분등도 유류및 동력비인상등으로 인상될 요인이 많고, 이번에 인상되지는 않았지만 소맥피의 경우도 소맥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인상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므로 품질의 향상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금년도 2월1일부터 정부에서는 양축가가 요구하는 주문사료를 사료 공장으로 하여금 양축가와 가격및 품질등을 상호협의하여 생산허용하고, 펠렛트사료등 특수가공사료는 가격을 자유화하여 공급토록 허용하므로서 고급품질의 사료를 희망하는 양축가에게는 수년래의 희망이 현실화되었음은 다행이라하겠다.

아울러 가루사료(분체사료)라 할지라도 환율 금리의 변동 안정기준가격품목인 옥수수를 제외한 수입원자재등의 변동추세에 적응토록 자유화하고 있어 앞으로는 가축의 품종및 특성, 계절및 년령에 알맞는 배합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된 셈이다.

표 2. 개정된 양계용 배합사료의 성분량 한도( )는 현행

품 명	성분량의 최소량(%)				성분량의최대량(%)		대사에너지 의최소량
	조단백질	조 지 방	칼 슘	인	조 섬 유	조 회 분	
(1) 어 린 병 아 리 (6주이하)	18.0 (19.0)	3.0	0.7	0.5	6.0	8.0	2,800
(2) 중 병 아 리 (7주~12주)	16.0	3.0	0.7	0.5	6.0	9.0	2,700
(3) 큰 병 아 리 (13주~산란개시전)	12.0	3.0	0.4	0.4	7.5	9.0	2,600
(4) 산 란 초 기 (산란개시후~25주)	15.0	3.0	3.0 (2.5)	0.5	6.0	14.0 (13.0)	2,700
(5) 산 란 중 기 (26주~40주)	14.5	3.0	3.0 (2.5)	10.5	7.0	14.0 (13.0)	2,600
(6) 산 란 말 기 (41주이상	14.0	3.0 (2.5)	0.5	7.0	14.0	0.5	2,500
(7) 육 계 전 기 (4주이하)	19.0	3.0	0.7	0.5	6.0	8.0	2,900
(8) 육 계 후 기 I (5주~출하8일전)	17.0	3.0	0.7	0.5	5.5	8.0	3,000
(9) 육 계 후 기 II (출하7일전~출하시)	17.0	3.0	0.7	0.5	5.5	8.8	3.000
(10) 종 계	15.5	3.0	3.0 (2.5)	10.5	7.0	14.0	2,700 (2,650)

※ 1980.2.1부터 시행

표. 백색레그혼의 산란초기에 있어서 에너지와단백질 요구량

대산에너지	선선할때			더울때		
	단백질 요구율	수당1일 섭취량	사료 계란	단백질 요구율	수당1일 섭취량	사료 계란
Kcal/kg	%	mg	gm	%	gm	gm
2,600	15.0	117	150	17.0	105	135
2,750	16.0	111	142	18.0	100	128
2,900	17.0	105	135	19.0	95	122
3,050	18.0	100	128	20.0	90	115
3,200	19.0	95	122	21.0	86	110
3,250	20.0	90	115	22.0	82	105

※ 산란율 78%(산란초기중 평균)

Nutrition of the Chicken Scott 박사저

4. 개정된 배합사료 성분한도

이미 대부분의 양축가가 알고 있겠지만 금년도 2월 1일부터는 배합사료의 성분량한도가 일부변경시행된다. 이기회를 빌어 간단히 그 내용을 요약하면, 표2와 같이 어린병아리의 조단백질함량이 최근 미국의N.R.C표준등의 조단백질수준 하향조정에 맞추어 종전 19%에서 18%로 조정되었고 모든 산란계사료의 칼슘최소량이 종전의 2.5%에서 3%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아울러 조회분도 13%에서 14%로 조정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배합사료의 조단백질규정은 별의미가 없고 필수아미노산이 적절수준공급되느냐가 문제라 함은 상식화된 이론이기는 하지만 어린병아리의 경우 조단백질18%의 경우 이에 알맞는 아미노산을 공급하여야하는바 자칫하다가는 품질의 저하를 가져오기가 쉽다고 보아진다.

또한가지, 금번의 배합사료성분량은 종전의 옥수수가격이 저렴할 때를 많이 참고한 것인바 필자가 월간양계를 통해서 발표한바도 있듯이 이제 사료의 열량(에너지)공급 원인 옥수수가 가격이 많이 올랐기때문에 경제성을 추구해야할 배합사료가 너무 고열량화되어 비경제적일수도 있을 것임을 우려하고 싶다.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백색레그혼중 산란계사료에 있어서 더운 여름에는 한국의 산란초기사료의 대사에너지 1kg당2,700Kcal이상으로 제한되어있으므로 정상적인 산란율을 유지하려며는 대략 조단백질18%정도의 고단백산란사료의 공급이 필요한 것이다. 만일 사료의 경제성을 고려할때, 산란계가 1일 105gm을 섭취할 능력이 있는 품종과 사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료의 단백질함량을 17.0%에너지를 2,600Kcal로 조정하여 주는 것이며 계란 1개당 생산비용이 저하될수도 있는 것이다. 사료원료의 가격진폭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주 에너지원인 옥수수의 가격이 매우 상승한 지금 이런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사료성분량한도에 있어서 하절기사료의 에너지 수준을 추가하여주거나 아예 자유화해버렸으면는 금상첨화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축산도 경제행위인 이상 보다 저렴한 사료비로 소기 이상의 생산을 하여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점으로는 앞으로도 국내학계및 업계와 정부가 신중히 검토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뭐니뭐니해도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단위축산물당 소요되는 사료비가 보다 싸야한다는 점이고 때로는 고효율사료가 때로는 저효율사료가 더욱 경제적일 수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금번부터 배합사료의 사용용도를 배합사료제조업자가 양축가의 사양기술, 계절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결정표기할 수 있게하여 진일보한점. 휴약사료로서 육계후기Ⅱ사료의 부활등은 환영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5. 예상되는 문제점

금번 사료가격인상으로 말미암아 금년도 전

반기의 축산업계 수지전망은 일단 짙은 먹구름이 끼인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선 현재의 축산물시세가 적정선이었다 하드라도 사료비가 경영비중 차지하는 비율이 70%였다고 할때 사료비의 인상으로 약90%로 뛰어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축산물시세가 20-30%정도 상승하지 않는다며는 20%이상의 적자를 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둘째로 기타 사료외적 요인 즉 광열비, 약품비 관리비등이 아울러 물가가 오르는 비율로 상승될 것이기 때문에 경영악화를 부채질할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계속되는 물가고때문에 축산물의 소비위축현상이 예상된다는 점으로서 조금이라도 공급과잉현상에 이야기될때는 가격폭락이라는 홍역을 치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축산인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계를 구정전에 과감히 도태하여 적자를 줄임은 물론 생산조절효과를 기하여야 할것이고 30%정도의 입식을 제한하여 생산을 줄이고 앞으로의 배합사료선택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태도로 구입하여 경영합리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양축업자는 품질보다는 가격이나 외상조건에 더 중점을 두어 사료구입을 하는 경향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므로 단위 축산물당 소요사료비를 계산하는 즉 사료의 효율성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 현명한 양축업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사료공장에 납품하는 사료첨가제의 수량이 격감하였다든가, 중소사료공장보다 3~10배 많은 물동량을 생산하는 대형공장의 어분이나 첨가제 인산, 칼슘등 비싼원료의 사용량이 중소기업사용수준을 넘지않는다든가 하는점은 품질관리가 소홀한 공장도 있지않았나하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것이다.

6. 결론

금번 사료가격인상은 사료업계나 정부자체에서 소화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민모두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때 비단 축산업계나 사료업계만이 계속 안정된 경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민모두가 힘을 합쳐 이 난관을 극복해야할 것이다.

다행히 금년도 2월부터는 품질이 높은, 혹은 경제성이 높고 가축의 특성및 사양환경등에 적합한 합리적인 배합사료를 주문사료라는 형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관심있는 양축업자는 사료제조공장기술진과 접촉상의하여 보다 좋은 사료를 공급받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으며, 펠렛사료등의 공급가격와 생산을 가능하도록 사료공장 자율화에 맡기기로 된점등 정부당국에서 진일보한 사료정책을 발표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로서 불경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처방을 보는것 같아 한가닥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할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사료공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사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사료정책으로 뒷받침하여 주면는 사료가격인상의 충격파는 수많은 한국의 사료기술자및 유능한 학계의 협조도 상당히 흡수될 수도 있으리라고 기대하여 본다. 또한 양축업자의 입식조절및 과감한 노계도태등으로 축산물의 공급량이 조정되어야 할것임은 문외한인 필자로서도 충분히 필요성을 통감하게 하는 일로서 전국적인 양계업자의 단결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한다.